

부영 임대료 인상률 2% 초반 요구

김승수 전주시장, 부영그룹 사장단에 신속한 하자보수·복리시설 확충 등도 주문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영그룹에 허가 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물 가 상승률,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2% 초반대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은 12일 시청을 찾은 부영그룹 부대표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에서 이 같이 현실여건을 반영해 임대료 인상폭을 줄여줄 것과 함께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영은 임대료 매년 인상률을 법률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됐다.

김 시장은 이날 "협상에 가보면 심박수를 알 수 있다. 수백 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 목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아파트의 취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서 세제혜택, 수익계약 등 혜택을 줘지 않느냐. 그럼에도 일반건설사처럼 하면 안된다"고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을 지적했다.

이번 만남은 당초 김 시장과 이종근 회장이 만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 회장이 전주시의 임대료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봉고문과 이 시장을 보내 이뤄졌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5년 허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문제 등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과 변호사, 교



김승수 전주시장은 12일 시청을 찾은 부영그룹 부대표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허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2% 초반대로 조성해 줄 것과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 언론인,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에 시청공무원을 상주시켜 민원해결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시는 또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임대료 상한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부영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함에 따라 (주)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전국 최초다.

지난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

장·군수·구청장들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뜻을 모았고,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법률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도 최근 임대료 증액 1개월 전 사전신고제 시행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임대료 인상은 주변시세와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한선에서 정하도록 법 제화해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고문은 "하자문제는 그룹 회장이 철저히 하라고 했다"면서 "전주시의 요구사항을 회장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전주시, 21일까지 홈페이지 공고... 22일~27일 접수

전주시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2억 4,12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차량 소유자들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지원규모는 약 170여대로, 시는 오는 2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 중 최근 2년 이상 연속 전주시에 등록 돼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

유한 차량이다. 단, 정부지원 배출가 스텝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 여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 표에 따라 결정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이고 배기량이 6000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주시 에너지전환과(063-281-232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이율 10% 준다' 속여 33억 가로채

투자하면 이율 10%를 준다며 속여 33억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46,여)씨를 구속하고, 사실혼 관계인 B(50,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 C씨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톨살롱에 투자하면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접근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모두 287차례에 걸쳐 약 33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 기자

A씨가 투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챙겨주자 신뢰가 커진 C씨는 주변 지인 14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A씨에게 투자했다.

C씨는 2017년 4월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 초교동장을 사칭했다.

A씨는 들켜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메시지를만 연락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자신의 자녀나 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상민 기자

공동체 활동으로 '남부시장에 예술 입힌다'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 공모사업' 6개 팀 선정... 260~500만원 사업비 지원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전주시민들이 힘을 모아 전주남부시장 상인들의 매대를 아름답게 개선해주시기로 했다. 또한, 활용되지 않아 쓰레기만 쌓인 유휴부지를 텃밭정원으로 가꾸고, 생산된 농작물을 원도심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업도 추진된다.

전주시는 이러한 사업들이 포함된 '2017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 팀을 최종 발표했다.

'꿈꿀'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 등 전주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전

주시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스스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사업이다.

선정된 팀들은 각각 26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먼저, '남부시장에 예술을 더하다'를 주제로 공모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수달(수공예의 달인들)' 팀은 남부시장 상인들의 열악한 매대를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격표와 앞치마 등을 아름답게 제작해 헌번 점포만의 시정문화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주 도시농부' 팀은 원도심

내 쓰레기가 쌓이고 미활용된 유휴부지를 찾아 텃밭 정원을 가꾸고, 여기서 생산된 농작물을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다.

'아이노우(KNOW)' 팀은 취약한 골목길을 청소하고 발광(조명)길을 조성하는 등 골목길 환경개선을 통해 한옥마을에 머무는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유입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시는 원도심 주민들이 환경과 문화, 교육, 소통, 먹거리 분야에 필요한 도시재생 사업을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컨설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후 돈 떼먹은 30대 집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후 주기로 했던 돈을 떼먹은 30대에게 집행유에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와 B(15)양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주기로 했던 40만원 중 5만 원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불륜 들켜 내연남 성폭행범 무고한 40대 집행유예

불륜관계를 남편에게 들켜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운현 판사)은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3년간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고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편에게 자신의 불륜사실을 들켜자 내연남인 B씨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은 A씨와 B씨가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되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자로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를 자백해 피고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덕진경찰, 공직 기강 확립 특강

덕진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찰 기강 확립을 위한 경찰서장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잇따라 발생하는 성범죄 등 경찰관 비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행됐다. /이상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